

할일 많은데 6월 국회 2주뿐...초조한 民, 사찰만 바라봐

코로나19 대응 역대 최대 3차 추경...6월 처리 차질 우려 “이번주 원 구성 마쳐야”...통합당과 충돌 피한 채 신중

6월 임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제동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까지,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주까지는 반드시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국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대 여당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까지도 아직 지방에서 첨가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찾아가는 등의 회동 일정이 알려진 게 없다.

민주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김종민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20일) 주 원내대표 방문 등으로 인해 복귀 명분이 일

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여야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차분하게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여의도를 떠나 전국의 사찰을 돌며 일주일째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당초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협상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주 내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임하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예상은 빛나갔다.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는 코로나19에 이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열린 데 닫힌’ 국난 상황에서, 초당적 대처에 힘을 모으지 않고 국회를 떠난 통합당 지도부의 자체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0년 전 연평도 포격 당시 야당이었

던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방위와 의 교통일위를 소집했다”며 “이제 통합당의 차례다.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다.

한편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7월4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9발(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6월 내 처리를 당부했던 3차 추경 심사가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추경 심사에는 2~3주가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은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전에 없던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본격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이번주 안에 원구성 협상을 완료하고 상임위원 심사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지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기동해 일부 심사를 시작했으며, 그외 상임위를 당정 간담회 형태로 운영하며 의견 교환을 진행해 왔다.

민주당은 이번주 초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전망하며 원구성 협상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경 심사에 필수적인 예산결산특별위 등 추가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밝히지 않으며 말을 아꼈



첨거 중인 주호영 설득 나선 김종민 김종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머물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만났다. 사진은 지난 20일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주에는 주 원내대표가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

거적으로 (통합당과) 부딪치지 않으려 한다.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그 때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동용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예결위 배정

의대 유치 및 광양항 발전 등 지역 현안 위해 최우선 노력



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에 모든 정부 사업의 관문으로 꼽힌다.

서동용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으로 전남 동부 의대유치 및 광양보건대 문제 등 지역 교육 숙원 사업 해결과 공약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21대 국회 임기 첫 해에 예결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관련이 높은 상임위에 배정되어 지역구인 순천광양구례국성을 비롯해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5일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자, 서동용 의원은 “지역 현안이 교육위를 선택한 주된 동기였지만 평소 공교육 정상화를

비롯해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배우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평등의 가치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남 동부 의과대학 유치 및 광양보건대 문제 해결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예결위는 지역구 의원 모두가 선망하는 곳인데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지역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떨 것”이라며 “특히 광양항 발전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농어민 최소 생활 보장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국정감사 등을 하는 위원회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 전국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 등 산하기관이 속해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을 비롯해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 등 나라 기간

통진당 후신 민중당, ‘진보당’으로 당명 변경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이 당명을 ‘진보당’으로 변경해 새 출발을 알렸다. 21일 민중당에 따르면 전날(20일) 실시

된 3기 전국 동시 당직선거에서는 61.1%의 투표율로, 김재연 전 의원을 대표로 하는 새 지도부가 꾸려졌다.

김 신임 상임대표와 함께 김근래·조용신·윤희숙 일반공동대표, 김기완 노동자민중당 대표, 안주용 농민민주당 대표, 이경민 빈민민주당 대표, 송명숙 청년민중당 대표가 차기 지도부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 국회의원 농해수위만 ‘북적’

전남도 “고르게 배치됐어야...” 의원들 “불가피한 선택”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절반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배치된 것을 두고 전남도와 의원들간 불편한 기색이 감지되고 있다.

전남도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상임위의 고른 분포를 희망한 반면, 다수 의원들은 지역 공약 실현을 위해 농해수위를 고집하면서 이해가 갈렸다.

전남지역 의원들의 21대 국회 소속 상임위를 살펴보면 농해수위에는 이계호(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영암·무안·신안)·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주철현(여수갑)·윤재갑(의령·해남·완도·진도)이 배정됐다.

이들 외에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김희재 의원(여수을), 노른자위로 불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배정됐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는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교육위원회에는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배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목포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김원이 의원(목포)이 배정받았다.

하지만 바다를 접한 ‘농도(農道 전남)’를 감안하더라도 5명의 국회의원이 농해수위를 희망한 것은 정치인들이 너무 지역구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다.

전남도는 ‘별루 이코노미’로 불리는 전남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지역 의원들이 여러 상임위에 전략적으로 포진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1조원대 차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치적 부채를 경험한 전남도 입장에서 방사광 가속기 추가 유치를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지역출신 의원의 포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해수위를 선택한 의원들은 지역주민과의 약속과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